

	<h1>No Dokdo No Korea</h1>	<p>제 1 호 (창간호) 2018년 07월 21일 <발행인> 정주성, 이지윤, 김근후, 최소연</p>
---	--------------------------------	--

● 온새미로...독도를 위한 한걸음



‘온새미로’는 독도의 가치를 알리기 위해 만들어진 반안중학교 독도 동아리입니다. 동아리명인 ‘온새미로’의 의미는 ‘자연 그대로, 언제나 변함없이’라는 뜻으로, 언제나 변함없이 독도가 우리나라의 영토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주요활동으로는 독도 지식 설문조사(부산 시내 2곳), 독도 홍보 UCC 제작, 독도 신문 발행, 세계 주요 포털사이트 지도 개선 건의, 교내 독도 홍보 활동 등이 있습니다.

● 독도...저는 이런 섬입니다.

독도는 울릉도에서 87.4km 거리에 위치해 있고, 우리나라의 동쪽 끝에 있습니다. 독도는 해저 화산 폭발로 형성된 **화산섬**이며, 육지 면적은 187.554m으로 작은 편이지만 해저 높이가 2,270m, 하부 지름이 30km나 됩니다.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한 해양성 기후이며 연중 강수량이 고른 편입니다.



<출처: 매일 신문>

독도에는 해국, 숭패랭이 등 50~60종의 식물과 팽이갈매기, 바다제비 등 139종의 조류가 살고 있습니다. 독도 주변 해역에는 한류와 난류가 만나 황금어장이 형성되고, ‘가스 하이드레이트’라는 자원이 분포해 있어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은 조선시대에 여러 문헌을 통해 독도가 조선의 땅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했지만, 조선의 국력이 약해지자 강치 조업을 위해 1909년 독도 강제 편입을 결정하였고, 2005년에는 2월 22일을 ‘다케시마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독도 강제 편입 이후 일본이 무분별하게 강치를 잡아들인 탓에 지금은 강치가 멸종되었을 뿐만 아니라 현재 일본의 검정 교과서에서는 독도에 관한 고문헌과 교과서를 무시한 채 일본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이 불법 점령하고 있다는 내용까지 실려 있습니다.

● 독도? 우리를 빼놓으면 섭하지

1. **안용복:** 조선 숙종 때 어부로서, 일본 어선을 독도에서 쫓아내고, 두 번 씩이나 일본에 까지 가서 일본 쇼군(당시 최고 통치권자)으로부터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의 영토라는 문서를 받아 왔음.

2. **홍순철:** 한국전쟁이 한창일 때 일본이 독도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울릉도민으로 독도의용수비대를 만들어, 스스로 수비대장이 되어 독도를 지킨 영웅적인 인물.

● 3달 동안 달려온 우리...

1. **독도 지식 설문조사:** 부산 내 지역 3곳(해운대, 벡스코)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다. 설문조사 보드를 제작해서 난이도별로 독도 관련

퀴즈 3문제를 내고, 시민들이 해당되는 곳에 스티커를 붙이게 한다.

Q.독도의 명칭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우산도	삼봉도	무릉도	자산도	가지도	석도	합계
벡스코	2(2.7%)	3(4.7%)	58(80.5%)	1(1.3%)	3(4.7%)	5(6.9%)	72(100%)
해운대	2(1.8%)	1(0.9%)	98(88.3%)	2(1.8%)	4(3.6%)	4(3.6%)	111(100%)
교내	5(2.9%)	8(4.6%)	154(89.1%)	2(1.2%)	2(1.2%)	2(1.2%)	173(100%)
합계	9(2.5%)	12(3.3%)	310(87%)	5(1.4%)	11(3.1%)	11(3.1%)	356(100%)

Q.독도가 한국 땅이라고 되어있는 일본의 고문헌이 아닌 것은?

	조선국 제시말 탐서	교내 태정관 지령	은주시청합기	시마네 현 고시 제 40 호	합계
벡스코	4(5.6%)	8(11.3%)	11(15.5%)	48(67.6%)	71(100%)
해운대	2(1.7%)	0(0.0%)	12(10.2%)	104(88.1%)	118(100%)
교내	150(89.3%)	11(6.5%)	4(2.4%)	3(1.8%)	168(100%)
합계	156(43.7%)	19(5.3%)	27(7.6%)	155(43.4%)	357(100%)

Q.독도를 지킨 안용복은 조선 후기 숙종 대의 관료였다.

	O	X	합계
벡스코	33(4.4%)	42(56%)	75(100%)
해운대	39(32.8%)	80(67.2%)	119(100%)
교내	131(79.9%)	33(20.1%)	164(100%)
합계	203(56.7%)	155(43.3%)	358(100%)

2. **포털사이트 지도 개선 건의:** 지도에 독도의 이름이 잘못 표시 되어있는 사이트(구글, 야후)에 개선 건의문을 넣어서 독도의 이름을 제대로 표시할 것을 요청하였다.

3. **독도 홍보 UCC 제작:** 독도와 관련된 간단한 소개와 독도의 가치, 일본의 거짓주장과 우리나라의 반박, 온새미로 동아리의 소개를 넣어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하였다.

● 독도랑 관련된 기사

◎日아베 잇을만하면 독도도발, 정치위기 돌파 ‘궁여지책’



아베 신조 일본 내각이 독도 영유권 부당주장을 지속하고 있다. 국내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궁여지책’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개정된 학습지도요령은 해설서, 검정교과서 제작 등의 과정을 거쳐 2022년도 신입생들로부터 순차적으로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기습적으로 3년 앞당기며 노골적으로 도발에 나선 것이다.

아베 내각은 올해 초부터 독도도발을 지속해왔다. 아베 내각은 올해 ‘다케시마의 날’ 기념행사에 마시타유헤이 내각부 정부관을 파견했고 도쿄 도심 한복판에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내용의 상설 전시관을 개설했다. 아베 총리가 독도 도발을 지속하는 것은 자신을 비난하는 국내 여론의 관심을 올리려는 책략으로 풀이된다.

[데일리안: 이배운 기자]

◎정읍 통합방위협 “日, 독도 영유권 주장 교과서 폐기하라”

전북 정읍시통합방위협의회(의장 유진섭



시장)는 2일 귀갑약수터에서 3/4분기 통합방위회의를 열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왜곡 교과서 폐기'를 촉구하는 규탄집회를 가졌다.

협의회는 이날 결의문을 통해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 없이 지난달 독도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내용을 포함한 '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이행조치'를 공고한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철회와 왜곡된 해설서를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자국민은 물론 한국 국민을 불모로 삼아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등의 4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news1뉴스: 박제철 기자]

●100일간의 소감

1. 김근후

⇒ 독도 홍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독도가 어떤 곳인지, 독도가 왜 우리 땅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독도에 대해서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프로젝트를 결코 혼자서는 할 수 없고 모듬원 한 명 한 명이 모두 협력해야 한다는 "팀워크"의 중요성 또한 깨닫게 되었다.

2. 최소연

⇒ 일본의 편협하고 근거 없는 주장과 우리 국민들의 무관심. 이들에 맞서 독도를 지키기 위해 작은 노력이라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에 대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독도에 관련된 영상이나 문서를 많이 찾아보았다. 그 과정에서 독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었고, 독도를 지키기 위해 우리 같은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작은 관심이 독도에겐 큰 힘이 되는 만큼 더 많은 학생들이 독도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독도를 홍보하고 지키도록 노력해야겠다.

3. 정주성

⇒ 독도는 바다위의 한 섬일 뿐이지만 우리에게 그 섬의 역사와 가치 하나 하나가 뜻깊은 것들이기에 우리나라의 국민으로써 자부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었다. 독도 홍보 활동을 하면서 한 가지 느낀 점이 있다면 협동의 중요성이었다. 혼자서 홍보를 했다면 활동범위가 좁아지고 많은 성과를 낼 수 없었겠지만, 여러 사람과 같이 도와가며 활동을 하여 더 큰 시너지를 만들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사람들이 독도에 더 관심을 기울여서 이 섬이 그 누구의 부정 없는 진실 된 국적을 가지게 되었으면 한다.

4. 이지윤

⇒ 이번 독도 홍보 활동을 통해 독도에 대해 알아보면서 독도가 어떤 섬인지, 일본이 독도에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등을 알 수 있었다. 독도는 예전부터 우리나라의 섬이지만 일본의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해 아직도 주인을 못 찾고 있다. 이런 독도의 상황을 보니 일본에 좀 더 강하게 나서지 못한 우리나라가 답답했다. 독도가 우리나라의 섬이 될 수 있게 작은 일부터 시작하여 더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겠다.